미 얀 마

01 미얀마 경제 동향
02 미얀마 시장의 특색 및 유망품목
03 미얀마 시장의 경쟁국 진출 동향
04 미얀마 진출 시 애로사항 및 유의점
05 미얀마 진출 성공 사례

전략시장연구실 김용태 실장
dragon@kita.net

01 미얀마 경제 동향

7.3, 8.4, 8.5, 8.5.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미얀마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경제성장률이다. 미얀마는 2011년 테인 세인 대통령 취임 이후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매년 7~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IMF는 미얀마가 세계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0년까지 해마다 7% 후반~8% 초반대의 고속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남아의 마지막 미개척지'로 알려진 미얀마는 내년 3월, 53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달성하고 신정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그동안 폐쇄적인 버마식 사회주의 실시와 군부 독재로 인해 문 앞을 막았던 장애물들이 제거되어 미얀마가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선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이런 미얀마의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매겨 '2016년 주목해야 할 아세안(ASEAN) Top 3 시장'으로 미얀마를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함께 뽑았다.

53년 만에 정권 교체, 내년 3월 신정부 출범에 경제 활성화 기대

지난 11월 8일, 25년 만에 치러진 자유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제1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승리해 내년 3월 '실질적'인 문민정부가 출범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8일 총선 개표 결과, NLD는 총 657석인 상하원 의석의 59%를 확보해 대통령을 배출하고,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지지자의 모습

미얀마의 군부 통치는 지난 2011년에 '명목상'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종식되었다. 여기서 명목상이라는 것은 군부 인사들이 정부의 요직을 독차지해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53년 만의 정권 교체를 통해 명실상부한 문민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

아졌다. 군부의 핵심 인물인 민 아웅 흘라잉 육군 참모총장과 슈웨 만 국회의장이 NLD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테인 세인 대통령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했다. 미얀마 군부는 1962년 네윈이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반백년 이상 미얀마를 지배해왔다.

군부의 약속대로 순조롭게 정권이 교체될 경우 미얀마 경제성장은 더욱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얀마는 2011년 개방경제로 돌아선 이후 4년 연속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경제개방 첫 해인 2011년 5.9%, 2012년 7.3%, 2013년 8.4%, 2014년 8.5%를 각각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감소한 올해에도 전년과 같은 8.5%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가 예상된다. 이런 수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10개국 가운데 최고는 물론 중국과 인도를 뛰어넘는 기록이다.

2003년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비난하면서 버마민주화법을 제정해 경제제재에 나섰던 미국의 제재 해제도 기대된다. 미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을 받게 되면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의류, 신발 등은 더욱 강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미국은 유화 조처의 하나로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이 지난 12월 7일 자국 기업과 금융업체들에 앞으로 6개월간 미얀마의 모든 항구와 공항, SOC 시설을 이용한 무역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제재 완화 대상에는 미얀마의 옛 군부정권 세력이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는 양곤의 공항 및 항만 터미널 등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곳들이 포함됐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미얀마와 아시아 주요국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f	2015f	2019f
미얀마	13.1	12.0	3.6	5.1	5.3	5.6	7.3	8.4	8.5	8.5	7.7
캄보디아	10.8	10.2	6.7	0.1	6.0	7.1	7.3	7.4	7.0	7.0	7.3
라오스	8.6	7.8	7.8	7.5	8.1	8.0	7.9	8.0	7.4	7.5	7.4
태 국	5.0	5.4	1.7	−0.7	7.5	0.8	7.3	2.8	0.9	2.5	3.3
베트남	7.0	7.1	5.7	5.4	6.4	6.2	5.2	5.4	6.0	6.5	6.0
인도네시아	5.5	6.3	7.4	4.7	6.4	6.2	6.0	5.6	5.0	4.7	6.0
말레이시아	5.6	6.3	4.8	−1.5	7.5	5.3	5.5	4.7	6.0	4.7	5.0
필리핀	5.2	6.6	4.2	1.1	7.6	3.7	6.7	7.1	6.1	6.0	6.5
싱가포르	8.9	9.1	1.8	−0.6	15.2	6.2	3.4	4.4	2.9	2.2	3.2
브루나이	4.4	0.1	−2.0	−1.8	2.7	3.7	0.9	−2.1	−2.3	−1.2	11.2
인 도	9.3	9.8	3.9	8.5	10.3	6.6	5.1	6.9	7.3	7.3	7.7
중 국	12.7	14.2	9.6	9.2	10.6	9.5	7.7	7.7	7.3	6.8	6.3
방글라데시	6.9	6.5	5.5	5.3	6.0	6.5	6.3	6.0	6.3	6.5	7.0
한국	5.2	5.5	2.8	0.7	6.5	3.7	2.3	2.9	3.3	2.7	3.6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년 10월, 이하 동일

마력이 한층 강화된 경제 성장의 엔진을 장착한 미얀마는 앞으로도 쉼없이 질주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높고도 꾸준한 경제 성장세에 따라 미얀마의 GDP가 2020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하고 빠르다(Strong and Fast)'라는 뜻을 지닌 미얀마의 나라 이름에 걸맞은 성장세라 할 수 있다.

미얀마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5f	2016f	2017f	2018f	2019f	2020f
GDP	GDP	658	713	790	875	964	1,062
	GDP 성장률	8.5	8.4	8.3	8.0	7.7	7.7

미얀마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힘입어 인구 1인당 GDP가 2011년에 1,000 달러를 넘어서면서 최빈국에서 탈피했다. 올해는 1,269 달러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1년 미얀마의 1인당 GDP가 2,000 달러를 넘어 베트남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아시아 주요국의 1인당 GDP

(단위 : 달러)

구분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미얀마
1인당 GDP	27,513	8,280	1,688	3,416	5,426	2,171	1,140	1,785	1,266	1,269
구매력 평가 기준	36,528	14,190	6,209	11,112	16,081	6,020	3,485	5,335	3,609	5,164

2013년도에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미얀마의 수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도(2012년 4월 1일~2013년 3월 31일)에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후 두 자릿 수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2013년도에는 사상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입 역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2년도부터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2013년도 26억 달러, 2014년도에 41억 달러로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

미얀마 대외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2009~10	7,587	11.9%	4,181	-8.0%	3,406
2010~11	8,861	16.8%	6,413	53.4%	2,448
2011~12	9,136	3.1%	9,035	40.9%	101
2012~13	8,977	-1.7%	9,069	0.4%	-92
2013~14	11,204	24.8%	13,760	51.7%	-2,556
2014~15	12,524	11.8%	16,633	20.9%	-4,110

자료 : 미얀마 중앙통계청(CSO), 이하 동일

미얀마가 주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천연가스, 의류, 옥, 쌀, 콩류 등이다. 10대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공산품은 의류 1개 품목에 불과하며 천연자원, 농수산물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중국 등의 해외 봉제업체가 진출해 생산 제품을 수출하면서 미얀마의 의류 수출은 2012년도에 7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나 2013년도에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얀마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2012~13	2013~14	2014~15
1	천연가스	3,666	3,292	5,179
2	의류	695	1,012	1,023
3	옥(비취)	544	885	1,018
4	쌀	442	638	652
5	검은콩	383	460	470
6	옥수수	328	376	393
7	녹색콩	298	341	369
8	수산물	278	311	250
9	나무콩	274	310	208
10	참깨 종실 (sesamum seed)	218	286	182

미얀마의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등 기계 · 운송기기, 정제 광유(Refined Mineral Oil), 기초금속 · 제조품(Base metals and manufactures), 전자기기 등이 차지하고 있다.

미얀마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2012~13	2013~14	2014~15
1	기계 · 운송기기	2,646	4,145	4,945
2	정제 광유	1,592	2,300	2,448
3	기초금속 · 제조품	1,025	1,543	1,932
4	전자기기 · 기구	489	708	1,038
5	식용 · 식물성 기름	351	515	562
6	플라스틱제품	309	468	516
7	인조 · 합성섬유	304	406	343
8	시멘트	273	253	301
9	의약품	168	231	300
10	비료	158	204	259

미얀마의 제1위 수출대상국은 인접한 중국이다. 2014년도 기준으로 전체 수출실적의 39.4%(47억 달러)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34.0%(40억 달러)를 기록한 태국이며 우리나라는 3.1%(3.7억 달러)로 미얀마의 제6위 수출대상국이다.

미얀마 주요 수출대상국가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2~13	2013~14	2014~15
1	중국	2,238	2,911	4,674
2	태국	4,001	4,306	4,029
3	싱가포르	291	694	759
4	인도	1,019	1,144	746
5	일본	406	513	556
6	대한민국	281	353	370
7	홍콩	13	489	289
8	말레이시아	98	109	265
9	인도네시아	32	60	86
10	베트남	81	111	80
총계		8,459	10,690	11,853

미얀마의 수입대상국 제1위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중국이다. 전체 수입의 약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계무역 국가인 싱가포르를 통한 수입도 2014년도 기준으로 전체의 26.3%로 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미얀마의 제9위 수입대상국이다.

미얀마 주요 수입대상국가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2~13	2013~14	2014~15
1	중국	2,719	4,105	5,020
2	싱가포르	2,535	2,910	4,137
3	일본	1,092	1,296	1,749
4	태국	697	1,377	1,679
5	말레이시아	361	840	744
6	인도	302	494	595
7	인도네시아	195	439	551
8	미국	120	80	494
9	대한민국	343	1,218	493
10	베트남	75	170	241
총계		8,439	12,928	15,703

점차 확충되는 사회간접자본

양곤 시내는 거의 하루 종일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2km 남짓한 거리를 차로 가는 데 30분 정도 걸리는 것은 일상다반사에 속한다.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 국가와 달리 오토바이의 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차량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시내에서 4곳의 고가도로와 6개의 육교를 건설하는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탓에 병목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1962년 네윈이 이끄는 군부의 쿠데타 이후 버마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장기간 폐쇄적, 자급자족적 고립경제 체제를 고수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그동안 미얀마의 취약점으로 지목되었던 SOC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유신 컨소시엄이 진행해왔던 '미얀마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의 결과물이 올해 나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내년부터 20년 동안 도로망 구축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미얀마의 고속도로는 경제수도인 양곤과 행정수도인 네피도를 연결하는 1개뿐이고 14개 주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양곤 시내는 여기저기서 도로 공사가 진행돼 더욱 혼잡하다

미얀마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양곤 시내 중심부의 인야호수 인근에 658개의 객실과 컨벤션센터 등 부대시설을 갖춘 5성급 호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바로 포스코건설이 대우인터내셔널과 함께 2014년부터 건설 중인 29층 규모의 '대우 아마라호텔'로 2017년에 준공되면 양곤의 최고층 건물로서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9월 23일에는 일본과 미얀마가 합작으로 건설 중인 미얀마 최초의 산업공단인 틸라와공단이 1단계 공사를 마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일본의 종합엔지니어링 기업 JFE엔지니어링은 지난 9월 양곤시로부터 쓰레기 처리 발전시설을 약 20억 엔에 수주했다. 미얀마 최초의 쓰레기 소각처리 방식의 이 발전시설은 쓰레

기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폐열로 증기터빈을 돌려 2017년 봄부터 700K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지난 12월 9일에는 예정대로 미얀마 최초의 증권거래소인 '양곤증권거래소(YSX)'가 문을 열었다. 미얀마 경제은행이 51%, 일본의 다이와증권과 일본증권거래소가 49%의 지분으로 합작해 설립한 YSX를 통해 미얀마 기업들은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원자재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일찍이 2011년 4월 "미얀마의 잠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미얀마가 증권시장을 연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들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얀마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P	출처
GDP	GDP		억 $	496	560	556	567	631	658	IMF('15.10)
				345	409	421	426	431	429	EIU('15.8)
	1인당 GDP	current prices	US$	998	1,118	1,100	1,112	1,228	1,269	IMF('15.10)
		PPP		3,435	3,672	3,980	4,348	4,752	5,164	
				2,555	2,710	2,872	3,050	3,264	3,456	EIU('15.8)
	실질GDP 성장률		%	5.3	5.6	7.3	8.4	8.5	8.5	IMF('15.10)
				4.5	4.8	5.0	5.5	6.4	6.8	EIU('15.8)
인구			백만명	49.7	50.1	50.5	51.0	51.4	51.8	IMF('15.10)
소비자물가 상승률			%	8.9	−1.1	4.7	6.3	7.5	13.3	IMF('15.10)
				9.4	0.7	6.0	4.4	7.1	9.4	EIU('15.8)
환율(연평균)			짜트(Kt): US$	970	815	852	934	984	1,148	EIU('15.8)
외환보유고			억 $	57.3	70.2	69.8	82.8	87.3	94.2	
대외채무			억 $	81.9	83.7	82.7	73.7	66.1	76.8	
정부 수입			% of GDP	11.4	12.1	23.4	23.4	26.4	20.8	IMF('15.10)
정부 지출				16.9	16.7	25.1	25.1	29.3	25.6	
정부 총부채				49.5	49.3	43.1	34.8	31.6	33.4	
무역	상품 수출액		억 $	73.4	77.0	82.2	90.2	89.6	97.6	EIU('15.8)
	상품 수입액			38.6	74.9	76.3	94.6	121.7	130.5	
	상품 수지			34.8	2.1	5.9	−4.4	−32.1	−32.9	
	경상 수지	금액		15.7	−15.6	−12.6	−11.3	−31.1	−28.7	
				−5.4	−10.6	−23.2	−29.6	−38.5	−58.7	IMF('15.10)
		% of GDP	%	−1.1	−1.9	−4.2	−5.2	−6.1	−8.9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02 미얀마 시장의 특색 및 유망품목

미얀마는 수출시장? 아니면 생산기지?

미얀마를 우리 상품의 수출시장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현지에서 직접 제품을 만드는 생산기지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지난 10월 현지에 진출한 금융, 제조, 무역, 물류, 법률서비스 분야 등의 관계자들과 현지 투자 관련 정부기관 및 상공회의소 인사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내린 결론은 미얀마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수출시장과 생산기지 두 가지 모두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열악한 사회간접자본(SOC), 미흡한 비즈니스 환경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인도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승부를 내려고 무리하게 욕심을 내면 100% 실패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미얀마의 매력: 저렴한 인건비, 지정학적 이점

미얀마가 갖고 있는 매력을 살펴보면 우선 저렴한 인건비가 꼽힌다. 미얀마 제조업의 월 평균 급여는 약 100 달러로 중국의 20%, 베트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전체 인구의 70%를 넘을 정도로 노동력도 풍부하다. 저렴한 인건비를 중시하는 봉제업종의 경우 임금 상승세가 가파른 중국과 베트남에서 미얀마로 공장을 옮긴 사례들도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 미얀마 정부가 최저임금을 하루(8시간 근로 기준) 3,600짜트(2.8 달러, 약 3,264원)로 종전보다 평균 35% 올렸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미얀마 노동자의 손재주도 골무를 끼고 섬세하게 바느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평이다.



미얀마는 중국, 인도,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5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충지이다

천연가스, 구리, 석탄, 철광석, 우라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농업, 임업, 수산업 모두 천혜의 조건을 갖춘 미얀마는 지리적 이점도 지니고 있다. 중국, 인도,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5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반경 2천㎞ 이내에 20억 명이 생활하는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도 매우 크다. 5개국을 겨냥한 생산기지로서 활용도가 높고 동 · 서남아를 연결하는 물류기지로서의 잠재력도 크다. 미얀마 자체의 인구도 5,142만 명[1]으로 적지 않은 시장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월 인천광역시 아시아 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 양곤에서 개최된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서울화장품의 한정수 대표는 "양곤 시내 백화점 등을 돌며 시장조사를 한 결과, 우리 회사에서 수출한 화장품이 중국, 태국을 경유해 미얀마에서 팔리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 검토를 거쳐 직수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양곤 시내 호텔에서 개최된 인천광역시 시장개척단의 수출상담회 모습

‘한류’ 열풍은 미얀마 시장 개척의 든든한 지원군

미얀마에서 ‘한류’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02년 TV 드라마 ‘맛있는 청혼’이 한국 드라마로는 처음 미얀마 TV 전파를 탄 이후 ‘겨울연가’, ‘가을동화’, ‘유리구두’, ‘토마토’ 등이 잇따라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한류가 형성됐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얀마에서는 일본, 중국 콘텐츠가 주류였으나 현재는 한국 드라마가 외국 방송 프로그램 시장의 약 80%를 차지할 만큼 한류가 대세이다. 양곤 시내 다곤타운의 시장에서는 이민호 등 한류 스타의 포스터가, 대형 쇼핑몰 정션스퀘어에서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 DVD 등이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현지 3대 공중파 TV방송인 MRTV, MYD, MRTV-4가 경쟁적으로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방송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미얀마 방송사의 제안에 따라 한류 전문 채널 ‘포 레이디스(For Ladies)’가 개국해 ‘꽃보다 할배’, ‘한식대첩’, ‘댄싱9’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들을 내보내고 있다. 변변한 문화생활이 없다시피한 미얀마 국민에게 TV는 레저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군부 지도자들은 이순신, 세종대왕, 주몽, 대조영 등을 다룬 사극 드라마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다. K-Pop도 예외는 아니

1) 2014년 8월 미얀마 정부가 인구센서스를 토대로 발표한 잠정통계로 북부의 소수민족 등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부분까지 합하면 6,000만 명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 지난 4월에는 걸그룹 포미닛이 양곤에서 7,000여 팬들의 열광 속에 성공적으로 단독 콘서트를 갖기도 했다.

지난 10월 출장 때 만난 상무부 산하 미얀마 트레이드센터의 마 마 세인 차장은 명함에 서울대에서 어학연수를 했다는 사실을 새겨 넣고, 한국 출장 시 남대문시장을 빼지 않고 들를 정도로 한국을 좋아한다. 인천광역시 아시아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에서 만난 티크목 가구 제조업체 뭬 미얀마 컴퍼니(Hmwe Myanmar Company)의 도 뭬 뭬 부사장은 2NE1, 슈퍼주니어의 팬이라며 "양곤 시민들은 한국 TV 드라마와 런닝맨 등 오락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고 밝혔다. 또 그녀는 "현대자동차와 삼성 스마트폰은 품질이 좋고 가격은 합리적"이라며 "한국산 식료품들을 전문적으로 파는 프로마트에서 고추장, 빵 등을 자주 산다"고 말했다. 또한 미얀마 입시생들 중 상위 5% 이내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다는 양곤외국어대학교(YUFL)의 8개 외국어학과 가운데 한국어학과가 단연 인기다. 최근 3년간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 통역이나 한국계 기업의 취업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미얀마에서 부는 한류 바람은 한국 상품의 고급 이미지 강화와 한국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양곤 시내 중급호텔에서도 한국 TV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한류는 경제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의 요청으로 수도 네피도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국가개발전략 싱크탱크인 가칭 '미얀마 개발연구원(MDI, Myanmar Development Institute)'이 설립될 예정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MDI 설립은 지난 2012년 양국 정상의 합의를 거쳐 올해 말부터 4년간 2,000만 달러가 투자된다. 미얀마 정부는 KDI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을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등 한국 경제 근대화의 기초 마련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MDI는 앞으로 미얀마의 경제발전 정책, 인재 양성 등에 관한 국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민간 부문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능도 맡게 된다. KDI국제정책대학원(KDIS)은 총 30명의 미얀마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세종시에서 석 · 박사 학위과정 수업을 진행 중이다. 또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위해 미얀마 고위급 및 실무정책 담당자 대상의 현지 교육 및 국내 초청연수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미얀마에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같은 무역진흥기관을 만드는 일명 '미얀트라(Myantra)' 사업도 추진 중이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지난 1월 미얀마를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미얀마에게 한국은 교과서와 같은 나라"라며 "국가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골고루 성장해야 하기에 미얀마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한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신정권에서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여 한국과 미얀마 간에 윈윈(Win–win) 차원의 경제 협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얀마의 닮은 점 5가지

1. 군부 통치와 민주화 항쟁
   – 한국은 1961~1993년 문민정부 출범까지 32년간, 미얀마는 1962~현재까지 53년간 군부가 통치. 한국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미얀마는 1988년 8월 민주화항쟁(8888항쟁) 경험

2. 일본에 의한 식민지 피지배
   – 한국은 1910~1945년까지 35년간, 미얀마는 1942~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함

3. 지정학적 위치
   – 한국은 대륙과 섬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 미얀마는 중국, 인도,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5개국과 접경

4. 정서적 유대감
   – 연장자를 공경하는 장유유서(長幼有序) 정신, 가족과 정(情)을 중시하는 공통점

5. 같은 어순
   – 말의 순서가 같아서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다는 양곤외국어대 한국어학과 출신 통역의 전언

미얀마의 약점: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열악한 사업 환경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매력적인 미얀마가 갖고 있는 약점들도 있다. 먼저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을 들 수 있다. 전기, 통신, 항만, 도로, 급수 등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미얀마의 전력생산량은 97억1,100만 KWH로 우리나라의 2.1%에 불과하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비즈니스 환경(Doing Businesss)' 평가에서 전기 공급의 경우 미얀마는 전체 126개국 가운데 121위에 그쳤다. 전체 인구의 약 30%만 전력을 사용할 수 있고 공단에서는 하루 4~6시간 동안만 전기가 공급돼 외국계 기업들은 비싼 디젤 발전기 등으로 자가 발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얀마 전체 도로의 44%는 비포장 상태이고 도로의 대부분은 폭이 4m 정도로 왕복 1차로에 불과하다. 인터넷은 속도가 느린 데다 요금도 비싸다. 양곤항은 수심이 얕아 최대 2만5,000톤급 이상의 선박 입항이 불가능하다.

외국 기업이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 법 체계 등 제반 환경도 아직 많이 미흡하다. 앞서 말한 세계은행의 2015년 비즈니스 환경 평가에서 미얀마는 전체 189개국 중 177위로 최하위권이다. 특히 기업등록 절차(189위), 계약이행(185위), 투자자 보호(178위) 등에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의 2014년 발표에 따르면 미얀마의 부패 수준은 175개 국가 중에서 156위로 하위권이다. 수직적으로 서열화된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기업의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토지가격 및 부동산 임대료도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다. 2007년 부동산 거래세 감면(37%→15%)과 정부의 개방정책 여파로 양곤 남쪽 달라 지역은 그동안 땅값이 100배 이상 뛴 것으로 알려졌다. 양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주거단지 사쿠라 레지던스의 원룸 임대료는 월 3,700 달러, 우리 기업들이 많이 입주한 사쿠라 타워의 사무실 임대료는 평방미터당 75~90 달러로 뉴욕의 맨하탄보다도 비싸다.

노동력은 풍부하고 저렴하지만 질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봉제업체인 오팔인터내셔널의 김정녕 부장은 "우수한 인력은 싱가포르나 대만으로 유출된 상태로 현재 근무 중인 제조근로자의 업무 습득력이 떨어진다"며 "특히 중간관리자급의 업무능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봉제업체인 톱테이의 유진 사장은 근로자의 질 저하의 원인이 군부의 우민화 정책에 있다고 설명한다. 대학생들이 주도한 8888항쟁(1988년 8월 8일에 벌어진 대규모 민주주의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군부가 학교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Tip

미얀마는 쉽지 않은 시장이다.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1,000개의 퍼즐을 맞추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미얀마는 10배인 1만개의 퍼즐을 맞추어야 한다.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고, 관련 절차가 문서상으로 완료되었다고 해도 100% 안심할 수 없다. 미얀마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곳이라 3년 이상 버텨야 성공하는 시장이다. 미얀마 건설시장을 보고 사무소를 설치했던 국내 일부 건설사들은 결국 철수했다. 지름길로 가로질러가는 방법보다는 정도(正道)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KDB산업은행 조경주 양곤사무소 소장

미얀마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 – 제조업 근로자 월급여 100 달러 (중국의 1/5, 베트남의 1/2 수준) • 풍부한 천연자원 – 천연가스, 원유, 철광석, 구리, 니켈 등 • 지정학적 · 전략적 요충지 – 중국 · 인도 · 태국 등 5개국과 국경, 반경 2,000km 이내 거주인구 20억 명	• 부족한 산업인프라 – 전력 생산량이 한국의 2.1%에 불과, 전력손실률 26%, 전화보급률 7%, 고속도로망 미비 및 철도망 노후화 등 • 미비한 사업 환경, 부정부패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5' 순위 전체 189개국 중 177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전체 175개국 중 156위 • 토지가격 및 부동산 임대료 급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2016년 3월 출범 예정인 신정부의 신투자법 개정 등 투자여건 개선 전망 •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부여 및 경제제재 해제 움직임 • 주변국인 중국, 베트남의 인건비 상승 • '한류' 열풍의 지속 – 드라마, K-Pop 등의 높은 인기 • 한국의 경제성장 비결을 배우려는 강한 열망 – 미얀마판 한국개발연구원(KDI) 가칭 '미얀마개발연구소(MDI)' 설립 추진	• 주요국(일본, 중국, 아세안)과의 진출 경쟁 • 2016년 3월 신정부 출범을 앞둔 정치적 불안 상존 – 현 집권 군부의 동향, 소수민족 · 종교 갈등 우려 등 • 정권 교체 후 급격한 사회변동 가능성 – 급속한 민주화 추진에 따른 부작용 (노사 분규, 빈부격차 갈등 격화)

미얀마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시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미얀마는 전 세계에서 기부를 가장 잘 하는 나라이다. 영국 자선구호재단(CAF)이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과 함께 집계해 발표한 '2015 세계기부지수(WGI)' 순위에서 1인당 GDP 1,269 달러에 불과한 미얀마가 세계 145개국 중 1위에 올랐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WGI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율 및 빈도, 자선단체 가입, 자원봉사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한 나라의 기부 문화가 얼마나 잘 발달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2014년 미국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랐던 미얀마는 2년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우리나라는 64위, 일본 102위, 중국 144위). 이런 사실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CAF는 미얀마의 불교문화가 기부에 우호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전체 인구에서 승려의 비율이 높은 데다 불교문화에서 기부가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어 국민들의 참여율이 92%로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따라 미얀마에서 외국기업이 비즈니스를 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CSR이 지적된다. 기업이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 외에도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CSR이

미얀마에서 필수조건의 하나라는 것이다. CSR 활동을 통해 미얀마 소비자와 정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CSR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13년 10월 양곤에 KB한국어학당을 개원, 매 학기 8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운영 중인 양곤 KB한국어학당 수료식 기념사진

양곤에 주 2회 취항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불교 성지인 쉐다곤 파고다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을, KD파워는 오보곤 지역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각각 기증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부터 미얀마 희망학교 건설 활동을 후원해오고 있다. 지난 6월에 준공된 다곤 세이칸 학교는 11개의 교실과 컴퓨터 교육실, 진료소 등을 포함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이뤄졌다. 카카오는 2016년까지 3년간 건축비, 결연후원비 등 3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평상시 CSR 활동은 물론 재난 시 활동도 활발하다. 미얀마한인회는 봉사단을 조직해 지난 8월 대홍수 피해를 당한 양곤지역을 방문해 담요, 모기장 등 긴급 구호품과 성금을 전달했고, 법무법인 지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도 구호금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 11월 북부 카친주 흐파칸시에 위치한 옥 폐광석 붕괴참사로 100여 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마침 미얀마 국제전기전력전시회에 참가 중이었던 보국전기공업의 곽기영 대표(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는 50KW급 발전기와 전기조합 명의의 성금을 기탁했다.

미얀마 유망 진출 분야 (1) 자동차 및 부품

미얀마의 경제수도 양곤 시내를 보면 일본 자동차 일색이다. 2012년부터 자동차 수입이 개방된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난 자동차의 대부분을 핸들이 오른쪽에 붙은 일본산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버스와 화물트럭 등은 한국산 비중이 높다. 양곤 시내에서는 다른 동남아 국가의 도시와 달리 오토바이의 주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주된 교통수단이다.



일제차 일색인 양곤 시내 모습



일본 기업이 공사 중인 도로 구간을 주행 중인 토요타 승용차

이제 수입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9월 미얀마 자동차법(Motor Vehicle Law 2015)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 Section 34에 의하면 미얀마 도로교통부는 안전을 위해 자동차 수입 관련 시행 법령을 규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미얀마 도로교통부에서 우측 핸들 차량 수입을 2018년 이내에 전면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의 도로체계는 우리나라처럼 좌측 핸들 자동차에 적합한 반면 전체 차량의 90% 이상이 일본, 태국에서 수입된 우측 핸들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 4,313명으로 하루에 12명꼴로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우측 핸들 자동차의 운전자는 중앙선과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보기가 힘든 데다 좌회전할 때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질서도 무질서해 우리나라 주재원들은 가급적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미 2014년부터 대형버스와 2014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 중 우측 핸들 차량은 수입이 금지된 상태로 자동차법의 시행 법령이 확정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커진다.



양곤 시내를 운행 중인 한국산 중고 버스

자동차 부품의 경우 비포장도로가 79%에 달할 정도로 현지의 도로 사정이 열악하고 잦은 열대성 폭우 등으로 무엇보다 내구성이 요구된다. 도로 등 SOC 여건, 기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의 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얀마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는 타이어, 배터리, 오일필터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의 증가에 따라 책임 여부 입증에 유용한 블랙박스도 잠재수요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양곤운송수단감독위원회는 이미 2년 전부터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 계획을 진행하는 등 상용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현재 양곤 시내 2,000대 이상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량 수입되고 있는 블랙박스의 수입액은 약 1,200만 달러(2014년 기준)이며 전체의 58%를 싱가포르산이 차지했다.



양곤 시내에서 영업 중인 현대자동차 대리점

미얀마 유망 진출 분야 (2) 농기계 등 농업

농업은 미얀마 경제의 핵심요소로 전체 GDP의 32.8%를 차지하며, 노동인구의 61.2%가 종사하고 있다. 특히 3모작까지 가능한 쌀은 미얀마 전체 수출실적에서 4위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으로 연간 수출 규모가 100만톤에 달한다. 미얀마는 과거 세계 1위 쌀 수출국이었지만 군부의 쌀 산업 국영화로 인해 경쟁력이 추락했다. 생산주체인 농민에게는 경작권만 주어지고 작물 선택, 재배, 수확 후 유통, 수출 등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시행됐기 때문이다. 미얀마 정부는 2011년 테인 세인 대통령 취임 이후 과거 세계 1위 쌀 수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장단기 목표 아래 기계화 농업, 농민에 대한 훈련 및 교육 등 농업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4년 쌀 생산량은 1996년에 비해 60%나 늘었다.

미얀마 정부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 현재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미얀마의 농업 및 농촌 개발 촉진,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완화를 통한 균형적인 지역 발전, 한–미얀마 개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4년 12월부터 오는 2019년까지 5년간 22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미얀마 정부와 주민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새마을 시범사업 추진, 새마을 연수를 활용한 공무원과 마을 지도자 교육 및 훈련, 선정된 100개 시범마을에 연간 2만 달러씩 총 3년간 지원 및 성과 인센티브 적용 등으로 되어 있다. 양곤 남쪽 외곽 딴린시에 있는 따낫핀 마을의 경우 올해로 4년째 맞는 새마을운동 덕분에 농가 수입이 종전보다 3배 늘어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춰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서 성공한 새마을운동의 사례로 꼽기도 했다.

농어촌공사는 미얀마 정부가 농업용수 확보,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을 위해 추진 중인 판라잉강 유역 농업종합개발사업과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의 농업 기계화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대동공업은 단순한 농기계 판매에서 벗어나 현지 농민 대상의 교육 등 창의적 마케팅을 펼쳐 현지 시장점유율 1위에 올랐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의 쌀 도정시설이 낙후된 현실에 착안해 신규 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미얀마대우인터내셔널의 강상진 차장은 "가스전에서 얻은 이익을 미얀마에 재투자한다는 방침 아래 RPC 사업을 결정했다"며 "내년 1 · 4분기 안에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승인이 나면 법인을 신설해 연간 10만톤 규모로 쌀 수출과 연계된 도정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95만톤의 곡물 트레이딩을 통해 4,300억원의 매출을 거둔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7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세계 곡물 거래기관인 런던 곡물거래협회(GAFTA) 정식 회원사 자격을 획득했다.

미얀마 유망 진출 분야 (3) 외식 프랜차이즈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미얀마의 변화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쇼핑몰이다. 이 곳에는 의류 및 화장품 매장은 물론 극장, 오락실, 각종 음식점들이 두루 입점해 있고, 수시로 이벤트와 공연 등이 열리기 때문에 젊은 연인들이나 가족들이 여가를 보내는 장소로 인기가 높다.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양곤 시내에서 이동할 경우 요금이 비싼 택시나 불편한 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의 가치는 높기만 하다. 또한 인터넷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도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요인이 된다.

양곤의 대표적인 대형 쇼핑몰 정션 스퀘어에는 빵과 한국 음식을 파는 문베이커리를 비롯 패스트푸드 체인 롯데리아, 치킨 전문점 BBQ, 한식 디저트 카페 Magic Snow(팥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을 현지 실정에 맞게 도입한 매장) 등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가 미얀마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미얀마 사람들은 50년이

넘는 영국의 식민지배 속에 하루 한끼를 빵으로 해결할 정도로 빵 소비문화에 익숙해졌다. 많은 빵집(베이커리)은 빵 이외에도 음식을 파는 카페형 베이커리로 운영되고 있는 게 특징이다. 현재 양곤과 네피도에 10여 개의 체인을 운영 중인 문베이커리는 일반 빵집으로 출발했다가 한류 바람을 타고 김치찌개, 떡볶이 등 한국 음식을 함께 제공하면서 대박을 터뜨린 사례에 속한다.

양곤 시내 주상복합 건물 펄 콘도에도 롯데리아와 닭갈비 프랜차이즈 유가네, 또다른 팥빙수 체인 Snow Factory 등이 미얀마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양곤에 4호점을 개설한 유가네는 올해 말까지 만달레이에 5호점의 문을 열 예정이다. 다른 외식 프랜차이즈로는 불고기 전문식당 불고기브라더스가 성업 중이다.



정션 스퀘어에서 성업 중인 문베이커리



정션 스퀘어에 위치한 BBQ

미얀마에서 한식 프랜차이즈의 성공 요인은 한류와 선점효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문화 및 식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한국 음식을 경험하려는 경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막강한 파워를 지닌 미국계 외식 프랜차이즈가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에 따라 현지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화공간을 겸한 복합쇼핑몰 등 시내 주요지역을 선점한 전략이 주효했다. 미국 프랜차이즈로는 KFC가 지난 7월이 되어서야 양곤에 1호점을 개점한 이후 11월에 2호점의 문을 열었다. 미국의 도넛 체인인 크리스피크림과 피자 체인점 피자헛이 조만간 미얀마에 진출할 예정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미얀마에서 월 50만 짜트(약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중산층이 오는 2020년에 1,0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2012년과 비교해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전 인구의 약 20%에 해당한다. 앞으로 미얀마 시장에 눈독을 들인 미국계 외식 프랜차이즈와 한국계 프랜차이즈의 시장을 둘러싼 진검 승부가 예상된다.



빙수 체인점 Snow Factory



빙수 체인점 Magic Snow

미얀마 유망 진출 분야 (4) 화장품

화장품 역시 외식 프랜차이즈와 같이 한류 열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여자 연예인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산 화장품으로 연결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한류 스타의 희고 매끄러운 피부를 동경하면서 소득수준에 비해 결코 싸지 않은 가격임에도 주저없이 지갑을 열고 있는 것이다.

양곤 시내에서는 LG생활건강의 비욘드(Beyond)를 비롯 미샤, 에뛰드하우스, 더페이스샵, 코리아나,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한국산 화장품 브랜드 전문 매장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션 스퀘어만 해도 주연결 통로의 목 좋은 곳에 5개 이상의 한국산 화장품 브랜드 매장이 포진하고 있다. 대기업 제품은 물론 지명도가 약한 중소기업 제품이라도 한국산이면 고급품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대형 쇼핑몰을 장악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



양곤 시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10월 13일 개최된 인천광역시 아시아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에서 인터뷰한 미얀마 기업 골든하우스의 퓨퓨 윈 대표는 "한국산 기초화장품은 일본 시세이도 화장품과 비교해 품질이 좋고 가격도 적당하다"며 "지금 쓰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스킨케어는 무덥고 습한 미얀마 날씨에도 알맞다"고 말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현재 양곤에 1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미얀마에 방문해 상담회를 개최한 영등포구청,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수출시장개척단에는 화장품 회사가 각각 1개 이상씩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미얀마 시장에 관심이 높다. 미얀마에서는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얼굴에 황색의 물감 같은 것을 바르고 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은 '타나카'라고 하는 천연화장품으로 미얀마 중북부 건조한 기후에서 자라는 타나카나무의 껍질을 갈아서 만든다. 미얀마 국민의 소득수준이 계속 향상되면 타나카 대신에 한국산 화장품을 더욱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얼굴에 타나카를 바르고 도로 가운데에서 물건을 파는 미얀마 여성

미얀마 유망 진출 분야 (5) 노동집약적 제조업

그동안 미얀마 정부가 추진해온 개방정책과 내년에 출범하는 신정부의 공약에 따라 해외기업의 투자 장애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봉제, 신발, 가방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저렴한 인건비라는 장점에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 부여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8월 섬유 · 의류산업의 환경친화적인 수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목표로 '2015~2019년 섬유 · 의류 수출전략'을 발표했다. 미얀마의 섬유 및 의류 수출은 2003년 미국 · EU 등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로 급감했으나 2012년 이후부터 미국의 제재 완화와 EU의 GSP 적용으로 수출이 증가세에 있다. 의류는 미얀마의 제2위의 수출품목으로서 2014년도 실적은 10억 달러(전체 수출 중 비중 8.2%)이다.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생산 경험이 풍부한 우리 봉제업체들은 중국의 인건비 증가에 대응해 미얀마에 대거 진출한 상태이다. 봉제업종 미얀마 진출 1호 기업인 신성통상을 필두로 이랜드월드, 오팔인터내셔널 등 메이저 기업들을 포함해 약 80개사가 미얀마를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신발의 경우 중국, 베트남에서 나이키 브랜드의 운동화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 중인 태광실업이 바고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현지 진출 국내 봉제업체 관계자들은 NLD의 주요 공약에 평등하고 넉넉한 월급을 받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동자 조직 및 단체 결성 허가, 국제노동기구(ILO)의 제도에 맞춘 노동 조건 개선 등이 포함돼 오히려 여건이 악화될까 우려하고 있다.

미얀마 유망 진출 분야 (6) SOC 개발

미얀마는 전력보급률이 약 30%, 이동통신 가입률이 35%에 불과할 정도로 SOC 사정이 열악하지만 이를 뒤집어보면 그만큼 개발잠재력이 막대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미얀마의 건설부, 전력부, 철도교통부 공무원들은 지난 10월 15일 양곤 시내 세도나호텔에서 개최된 '미얀마 투자 프로젝트 포럼'에 참석해 유망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양곤무역관 주최로 열린 이 날 포럼은 현지에 진출한 100여 개 우리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미얀마 정부는 2030년까지 미얀마 전력 수요를 100% 충족한다는 목표 아래 2001년부터 2031년까지 30년간 전력산업 발전 6단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발전분야에서 2만2,700MW의 생산설비 확충을 위해 281억 달러, 송전분야에 1만2,710㎞의 송전선 건설을 위해 22억 달러, 배전분야에 71억 달러 등 총 374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미얀마 전력부는 3개의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9개의 송전망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0월 양곤 시내 호텔에서 개최된 미얀마 투자 프로젝트 포럼

우리나라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를 통해 지난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농촌, 지역개발, 인적자원개발, 공공행정, 인프라, 환경분야 등에 6,61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경우 1992년 전화통신망 확충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0개 사업, 4억2,3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지난 11월에는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양곤시 도심–남부 달라지역 연결, 1억3,800만 달러)'과 철도현대화 사업(노후객차 100량 교체, 철도차량 정비소의 기자재 공급, 4,500만 달러)에 총 1억 8,300만 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의 미얀마 SOC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최대 통신업체 악시아타(Axiata)는 지난 10월 통신 인프라스트럭처 업체 '디지셀 미얀마'에 1억2,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악시아타는 미얀마 내에 1,250개 통신탑을 보유하게 됐다.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얀마가 이동통신 가입률 70% 목표를 달성하려면 1만7,000개 통신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악시아타는 미얀마 통신사업자 허가 취득도 추진 중이다.

미얀마 유망 진출 분야 (7) 자원 개발

미얀마는 미개발 광물 자원 및 에너지의 보고로 천연가스와 원유는 물론 철, 구리, 니켈, 석탄 등 핵심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그동안 경제제재로 선진 메이저기업의 진출이 미미했으나 최근 들어 급증세로 돌아섰다.

1970년대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기업이 시추에 실패한 가스전을 대우인터내셔널이 인수해 2004년부터 연이어 3개의 가스전을 발견했다. 총 매장량 4조5,000억 입방피트, 생산기간 25~30년으로 대우인터내셔널은 2014년 하반기부터 5억 입방피트 규모로 생산 중이다.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2,480km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석유공사에 공급 중이며, 기대수익은 연간 3,000~4,000억원에 이른다.

아직 진흙 속에 숨은 진주처럼 유망분야 많아

"지금 미얀마의 모습은 한국의 1970년대 수준이다. 미얀마에서 어떤 분야가 유망한지는 이를 토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라는 미얀마상공회의소 틴트 스와이 CEO(전 이탈리아 대사)의 말에서 시장 개척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얀마보다 못 살았던 과거의 최빈국 시대를 거쳐 이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행착오와 성공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발굴해낼 수 있다. 전문가들이 꼽는 유망 아이템은 책을 복사해 공부하는 대학의 현실을 반영한 고속복사 전문점, 중고 스마트폰 판매점 및 애프터서비스센터, 외국기업 상대의 렌터카 전문점, 음악 등 문화콘텐츠사업, 볼링장 등 레크리에이션업종, 네일아트 전문점 등이다.



양곤에 진출한 CGV 영화관

최근 소비재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미얀마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1위 가발업체인 하이모는 지난 11월 3년간

1,000만 달러를 투자한 미얀마 맥도(MacDo) 공장을 완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하이모는 맥도 공장과 기존 중국의 2개 공장을 활용해 늘어난 주문 물량을 소화하고 해외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계 생산업체인 로만손은 지난 10월 양곤 시내 쇼핑몰 정션 스퀘어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점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시장에서 성공한 특정 상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구성해 브랜드의 성격과 이미지를 극대화한 매장으로 로만손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시계 시장에서 판매수량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1%를 차지하고 있다.

대(對)미얀마 수출은 연간 8억 달러, 수입은 5.8억 달러 규모

우리의 대미얀마 수출은 8억 달러(2014년) 규모로 올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미얀마 수입은 5.8억 달러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의류와 농산가공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對미얀마 10대 수출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1~10월)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총계	705	-47.0	총계	800	13.5	총계	546	-10.8
1	건설중장비	79	17.0	건설중장비	120	52.1	건설중장비	64	-34.3
2	합성수지	62	55.0	기타자동차	56	3,367.0	직물제의류	36	0.8
3	화물자동차	59	145.5	화물자동차	49	-16.5	기타자동차	31	2,706.9
4	폴리에스터직물	37	49.6	직물제의류	45	25.8	편직물	28	63.4
5	모류	37	94.2	합성수지	39	-37.1	화물자동차	23	-46.5
6	직물제의류	35	37.0	필름류	26	26.4	합성수지	19	-38.0
7	나일론직물	24	22.1	모류	26	-30.8	필름류	19	-17.2
8	편직물	23	65.2	폴리에스터직물	25	-32.6	전선	18	26.6
9	전선	21	82.0	나일론직물	22	-7.3	계측기	16	37.0
10	승용차	21	189.7	승용차	22	6.5	신발부분품	16	35.3

주 : MTI 4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이하 동일

최근 對미얀마 10대 수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1~10월)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총계	488	38.9	총계	580	18.9	총계	441	-13.0
1	직물제의류	336	31.5	직물제의류	407	21.2	직물제의류	287	-19.6
2	편직제의류	55	135.8	기타농산가공품	66	29.3	편직제의류	62	21.6
3	기타농산가공품	51	74.1	편직제의류	55	0.7	기타농산가공품	28	-50.7
4	천연고무	8	-42.6	기타신발	9	56.1	기타신발	8	1.5
5	두류	7	-0.8	두류	6	-2.7	수확탈곡기계	7	0.0
6	기타신발	6	15.9	기타섬유제품	4	96.1	두류	7	28.0
7	동괴및스크랩	5	0.0	천연고무	4	-51.9	신발부분품	5	15,500.5
8	채소류	3	52.2	연초류	3	334.6	천연고무	4	48.4
9	기타섬유제품	2	54.8	식물성한약재	3	92.2	기타섬유제품	4	4.6
10	곡류	2	14.8	센서	2	0.0	알루미늄괴및스크랩	3	97.8

對미얀마 투자는 2009년 이후 본격화

우리 기업들의 대미얀마 투자는 2009년 이후 본격화됐으며 2014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했다. 1990년 대우전자가 가전제품 생산을 위해 투자한 이후 대우그룹 계열사의 투자가 이어졌으며, 2009년 이후 대우인터내셔널의 가스전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투자가 크게 늘었다.

총 투자 471건 가운데 중소기업의 비중이 51.8%(244건)에 이른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대우인터내셔널의 가스전 투자(27억 달러)에 따라 대기업이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對미얀마 직접투자 기업규모별 현황(누적 기준)

(단위 : 건, 개, 천 달러)

구 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대기업	154	46	4,538,998	2,313,314
중소기업	244	117	288,968	99,636
개인기업	9	7	3,198	1,485
개인	63	35	13,594	4,072
기타(비영리단체 등)	1	1	50	50
합 계	471	206	4,844,807	2,418,556

주 : 2015년 1~9월 누적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동일

對미얀마 연도별 직접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對미얀마 직접투자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1990	7	2	58,700	9,450
1991	6	1	64,034	5,188
1992	1	1	170	4,034
1993	2	2	2,000	984
1994	7	3	1,965	399
1995	6	5	1,490	1,410
1996	9	6	5,219	3,177
1997	13	8	15,635	5,880
1998	4	2	3,768	7,660
1999	8	3	5,485	5,665
2000	20	9	20,472	9,338
2001	12	6	3,278	5,829
2002	6	1	2,400	2,815
2003	4	1	2,997	891
2004	1	0	455	0
2005	2	0	830	649
2006	5	1	471	465
2007	6	3	17,868	1,168
2008	1	0	49,746	35,800
2009	8	3	3,533,271	350,894
2010	10	2	233,038	197,388
2011	20	7	108,679	423,102
2012	20	10	42,130	327,615
2013	85	39	153,755	510,193
2014	102	53	461,574	310,685
2015	106	38	55,377	197,877
합계	471	206	4,844,807	2,418,556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광업이 전체의 75.4%를 차지한다. 법인수(전체 206개) 기준으로는 제조업(주로 봉제업)이 41.7%(86개)로 가장 많고, 건설업과 도소매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주미얀마대사관의 현지진출기업 조사 결과, 파악된 147개사 가운데 제조업이 72개사(봉제업 53개사), 도소매 유통 13개사, 금융 · 보험 10개사, 운송 · 물류 10개사, 건설업 6개사, 농림수산임업 4개사, 기타 서비스업(인력송출, 컨설팅, 관광, 요식업) 32개사로 나타났다.

對미얀마 업종별 직접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1	5	11,224	4,024
광업	13	8	3,651,836	1,869,197
제조업	237	86	365,447	216,21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1	100	25
건설업	39	23	4,121	2,570
도매 및 소매업	48	23	20,257	16,065
운수업	18	9	694,683	284,871
숙박 및 음식점업	4	1	60,400	3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	2	90	66
금융 및 보험업	11	5	12,400	12,071
부동산업 및 임대업	30	11	10,723	6,07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20	6,327	4,35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	4	1,201	201
교육 서비스업	1	1	50	2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1	700	14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7	3	4,671	1,77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3	578	578
합계	471	206	4,844,807	2,418,556

03 미얀마 시장의 경쟁국 진출 동향

매력적인 '황금의 땅' 미얀마가 열린다

미얀마의 경제수도 '양곤'[2]에 가면 부처의 머리카락을 봉인한 불교 사원 '쉐다곤 파고다'가 관광객들과 미얀마인들을 맞이한다. 약 1만 평 규모의 사원 중심에 세워진 쉐다곤 대탑의 높이는 99.4m, 둘레는 426m로 전면이 모두 금판으로 뒤덮여 있다. 매년 두 차례, 대탑의 약 90m 지점까지 사다리로 올라가 불교 신자들이 시주한 금판을 계속 덮어가는 작업을 한다고 한다. 양곤 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 '황금 언덕'[3]을 보유한 미얀마에 외국 기업들의 골드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2011년부터 본격화된 미얀마 정부의 개방정책 추진과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2년도 이후 매년 약 2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 통계에 따르면 2012년도(2012년 4월 1일~2013년 3월 31일)의 FDI는 14억1,900만 달러였으나 2013년도에 41억700만 달러, 2014년도에 80억1,1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주요국의 對미얀마 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1위	싱가포르	39	226	–	418	2,300	4,297	2,030
2위	네덜란드	–	–	–	10	–	302	430
3위	인도	–	–	73	12	26	209	222
4위	일본	12	7	4	54	56	86	155
5위	홍콩	6	5,798	–	85	107	626	155
6위	중국	3	8,269	4,346	232	56	511	125
7위	영국	–	799	100	233	157	851	52
8위	태국	15	2,146	–	1	529	166	33
9위	대한민국	–	2,676	26	38	81	300	23
10위	브루나이	–	–	–	1	2	44	19
총계		330	19,999	4,644	1,419	4,107	8,011	3,280

주 : 미얀마의 회계연도는 해당연도의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임. 국별 투자액 순위의 기준인 2015~16년은 201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임

자료 : 미얀마 국가계획경제개발부 투자기업관리국(DICA)

2) 미얀마 정부는 2005년 11월 수도를 양곤에서 북쪽으로 320km 떨어진 '네피도'로 이전. 네피도는 미얀마어로 '왕국의 도읍지' 또는 '왕이 사는 곳'을 의미

3) 미얀마어로 '쉐'는 황금, '다곤'은 언덕이란 뜻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투자 여건

이런 해외기업의 미얀마 투자 확대는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강화를 포함한 신외국인투자법('12. 11) 개정과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제도 개정('14. 1) 등으로 투자 여건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24년 만에 개정된 신외국인투자법에 따라 단독투자, 합작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가능해졌으며 토지 사용이 최장 70년간 허용되고, 과실송금도 보장됐다. 경제특구 제도는 2011년에 제정한 경제특구법이 2012년에 개정한 외국인투자법과 비교해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제도 개정으로 경제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최대 75년간(기본 50년+추가 연장 25년)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종전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임대토지의 제3자 양도도 가능해졌다.

미얀마의 투자 여건은 앞으로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미얀마의 투자기업관리국(DICA)이 지난 7월 29일에 발표한 '2015 미얀마 투자법' 초안은 기존 '2013 미얀마 시민 투자법'과 '2012 외국인 투자법'을 합한 통합 투자법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 신통합투자법 안에서 국내외 모든 투자자들에게 법률, 규제, 행정처리 등에서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대우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달러화, 미얀마 짜트화로만 송금 및 거래가 가능했으나 신투자법에서는 국제통합기구(IMF)에서 허가한 모든 통화로 투자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직접 정부에게 문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웠던 인센티브 혜택들을 정부가 발급해준 '인센티브 증명서(Incentive Certificate)'로 어디서든지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다.

투자 관련 분쟁 등 문제가 생겼을 때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은 항의하거나 문의할 수 없었지만 신투자법에 따라 해외 투자가들이 안심하고 미얀마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애로 해결기구(Investment Grievance Mechanism)'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사업에 대해 정지, 국영화와 같은 몰수에 버금가는 어떠한 수단도 실행하지 않을 것도 보장할 방침이다.

對미얀마 투자 제조업, 교통·통신, 부동산개발 등으로 확대

최근 미얀마에 대한 FDI는 지금까지의 천연가스와 원유 등 자원 중심에서 제조업, 교통 · 통신, 부동산개발,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해외 각국이 그만큼 미얀마의 성장성을 인정했다는 반증이다.

주요 산업별 對미얀마 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산업 분야	1989~2012	2013~2014
전력	19,068	257
석유 · 가스	14,182	2,811
광업	2,830	39
제조업	1,911	3,247
호텔 · 관광	1,365	793
부동산개발	1,056	1,064
교통 · 통신	314	2,720

자료 : 미얀마 국가계획경제개발부 투자기업관리국(DICA)

내년 3월 집권하게 될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주요 공약에는 책임감 있고 기술이 뛰어난 외국 투자자 유입 확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장려, 해외 각국과의 다양한 합작 프로젝트 진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미얀마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 각국의 투자전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제제재[4] 기간 동안 맏형 역할을 해왔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월 아웅산 수치 여사를 초청했다. 11월 총선 승리가 유력했던 미얀마 제1야당과 정치적 유대를 쌓기 위한 사전포석이었다. 회담 자리에서 시 주석은 "1950년 수교 이래 중국과 미얀마의 우정은 비바람이 불어도 변하지 않았다"며 양국을 "휴척여공(休戚與共: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한다)의 운명공동체"라고 표현했다. 중국은 신(新) 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성공을 위해 인도양의 길목인 미얀마와 경제 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미얀마의 서부 해안(인도양)의 짜욱퓨와 윈난성의 성도 쿤밍(昆明)을 연결하는 약 800km 가스관을 2013년 10월에, 송유관을 2014년 8월에 각각 완공했다. 미얀마 타임즈는 "(아웅산 수치 여사의)방중을 계기로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와 쿤밍을 연결하는 약 2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최대의 채권국은 일본이다. 총 채무 118억 달러의 54.2%를 일본에 지고 있다. 일본은 자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한 태국처럼 미얀마를 '제2의 태국'으로서 활용한다는 전략 아래 대규모 자금 공세를 펼치고 있다. 2003년 미국이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비난하면서 버마민주화법을 제정, 미얀마 경제제재에 나서자 일본도 여기에 동조해 미얀마와 거리를 두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다가 2011년 3월 미얀마 군부가 스스로 민간에 정권을 이양한 뒤 통제경제에서 자유개방경제로 이행하자 진출로 방향을 바꿨다. 자국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 1968년부터 1987년까지 미얀마에게 제공한 차관 중 3,000억 엔의 부채를 2012년 4월에 탕감한데 이어 2013년에 추가로 2,000억 엔을 탕감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400억 엔의 무상원조, 510억 엔의 신규 차관 제공이 담긴 돈보따리를 풀었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지난 11월 양곤, 만달레이, 빠떼인 등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0억 짜트(약 400만 달러)를 차관으로 공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미얀마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3개의 경제특구 육성사업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 지난 9월 23일, 미얀마 정부 및 민간기업과 일본의 미쓰비시상사 · 마루베니 · 스미토모상사 등 3대 종합상사, JICA 등이 공동 출자해 개발 중인 틸라와 공업단지의 1단계 준공 기념식이 열렸다. 양곤에서 남동쪽으로 23km 떨어진 틸라와 공단은 발전소 및 국가전력망, 정수장 등 기반시설을 갖춘 미얀마 최초의 대규모 공업단지로 전체 면적은 2,400헥타르, 오는 2018년 말 최종 완공될 예정이다. 9월에 1단계로 준공된 클래스A 지구(396헥타르)에는 스즈키 · 와코루 등 24개의 일본 기업과 미얀마 · 미국 · 중국 · 태국 등 13개국의 47개 기업이 입주해 가동에 들어갔다. 틸라와 공단은 2013년 5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얀마 방문 당시 250억 엔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이 포함된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조성작업에 들어갔다.

4) EU는 2013년 5월에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같은 해 7월에 GSP 혜택도 부여함

이와 별도로 미얀마와 일본은 약 400억 엔을 투자해 틸라와 공단 인근에 최대 700헥타르의 공단을 추가 개발한다는 내용의 MOU도 체결했다.

중국 주도의 짜욱퓨 경제특구는 중국 운남성–미얀마 횡단–벵골만을 잇는 가스관 · 도로 · 철도 등의 연결 사업, 서부 해안의 짜욱퓨 심해항구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제 공단 조성 계약이 체결되는 초기 단계이다. 태국 주도의 다웨이 경제특구는 심해항구, 산업단지, 신도시, 발전, 도로, 수처리 등 6개 분야에 80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나 자금 조달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 7월 태국, 미얀마와 다웨이 경제특구 개발에 관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태국 방콕에서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웨이에도 발을 걸쳤다.

일본 주도의 틸라와 공단 1차 가동에 발맞춰 발전시설 및 전력망, 수처리, 농기계, 관광, 외식체인 등 전방위에 걸쳐 일본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JFE엔지니어링은 지난 9월 양곤시로부터 쓰레기 처리 발전시설을 약 20억 엔에 수주한데 이어 생수 사업에도 진출했다. 수돗물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양곤에서 하루 20입방미터의 지하수 처리시설을 2016년 초부터 가동해 페트병 용기에 생수를 담아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미얀마 건설부와 합작으로 J&M스틸솔루션즈를 설립해 2014년 4월부터 교량, 가드레일 등 철구조물 제작에 나서 양곤시 입체교차로의 고가교(高架橋) 등 지금까지 30건을 수주했으며, 내년 3월까지 연산능력을 종전의 2배인 2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야마카전업은 미얀마 전력망 프로젝트에 참여해 북서부 라인타야와 중부의 챠이라를 연결하는 송전선 기초공사 등 2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히타치 산기시스템은 미얀마의 SEM과 합작으로 설립한 히타치SEM을 통해 지난 10월부터 전력 · 배전용 변압기 등 송배전기기의 설계 · 제조 · 판매사업에 나섰다. 쿠보타는 지난 9월 농업 비중이 큰 미얀마 시장의 본격적인 공략을 위해 자본금 2,380만 달러 규모의 트랙터 · 콤바인 농기계 판매법인 쿠보타미얀마를 설립했다. 한편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는 지난 8월 미얀마의 유명 관광지 바간에서 현지 호텔 종업원, 관광가이드 등을 대상으로 고객응대 강습회를 여는 등 관광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본격적인 미얀마 진출을 위해서는 SOC가 잘 갖추어진 전용 공단의 조성이 필요하나 아직 극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얀마 양곤주 야웅니핀 지역에 2.4㎢(72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에서 산업단지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맡아 지난 8월에 완료한 상태다. 이 사업은 한국 · 미얀마 민간협력 시범투자사업으로서 올해 안에 국내컨소시엄이 구성될 예정이다.

한중일 3국 외에 다른 국가들의 미얀마 진출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의 Black & Veatch는 내년 1 · 4분기 안에 미얀마에 220KW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발전소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로 Black & Veatch는 5,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공사 기간은 30개월로 예상하고 있다. 라오스의 Sunlabob는 내년부터 미얀마의 샨주(Shan State)와 친주(Chin State)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독일 아디다스는 지난 10월 양곤 따두깐 공업단지에 신발 공장을 완공하고 조만간 근로자를 1만 명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독일의 철강, 자동차부품, 엘리베이터 제조 대기업인 튀센크룹은 지난 5월 미얀마의 성장하는 승강기 시장 등을 겨냥해 양곤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04 미얀마 진출 시 애로사항 및 유의점

부족한 투자 및 시장 정보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구동성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정보의 부족이다. 50년 이상 장기간 폐쇄체제에 있다 보니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멀고 공개된 정보의 양도 적기 때문이다. 공표되는 통계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 미얀마 대우인터내셔널의 강상진 차장은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계 등 참고자료를 얻는 것이 정말 어렵다"며 "사업 타당성조사 시 관계자와 상담을 통해 부족한 정보를 채울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법률도 아직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 혼선도 빚어진다. 2012년 현지에 진출해 300여 건의 법률 자문을 수행한 법무법인 지평의 장성 미얀마법인장은 "미얀마 법은 과거에 제정된 법률과 신설 법률이 뒤섞여 기업이 해석상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며 "소문에 가까운 '~카더라 통신'을 믿지 말고 정확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통관 등 정부 정책도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경우가 많아 골탕을 먹는 경우도 있다. 한진 등 많은 우리 진출업체들이 내년 3월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 신규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멀게, 정확하게, 함께 가야 하는 시장

미얀마 정부는 2014년 10월 외국계 은행 지점 설립 허가를 내주면서 일본 3개 은행(미즈호, 미쓰이스미토모, 미쓰비시도쿄UFG), 싱가포르 2개 은행, 중국 · 말레이시아 · 태국 · 호주 각 1개 등 총 9개 은행을 선정했다. 최소 1개 이상의 허가를 기대했던 우리나라 은행은 1곳도 선정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5] 당초 2개 은행의 허가를 예상했던 일본은 1개를 추가로 얻었다. 미얀마가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철수하지 않고 꾸준히 활동하면서 미얀마 정부로부터 신뢰를 획득한 게 큰 힘이 됐다.

이런 고배의 원인을 동반 진출과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차이에서 찾는 시각이 있다. 일본은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들이 한 몸이 되어 체계적인 장기 계획 아래 무상원조와 금융지원, 민간투자 등을 병행하는 '패키지 플랜'으로 미얀마를 공략한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5) 현재 미얀마에는 8개 은행(KDB산업 · 수출입 · 기업 · 신한 · 우리 · 하나 · 국민 · 부산은행)이 현지법인이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약 1년 반의 짧은 사무소 운영 경험으로 탈락한 국내 은행들은 내년에 예상되는 2차 지점 승인에 대비해 소액대출기관(Micro finance) 진출 등으로 준비하고 있다.



일본 미즈호은행 양곤지점


태국 방콕은행 양곤지점

미얀마 사람들에게 현지 진출을 위해 출장 와서 보고(Look), 듣고(Listen), 배우고(Learn),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떠난다(Leave)고 해서 '4L' 민족으로 불렸던 일본이 장기적 연구와 검토를 마치고 2012년을 기점으로 공세로 돌아섰다. 지난 10월 출장기간에 면담한 미얀마상공회의소(UMFCCI)의 마웅 마웅 민트 대외협력부장이 "한국 기업들은 투자 환경 조사 차 미얀마를 방문한 뒤 검토만 몇 년씩 하는 것 같다"며 "왜 한국은 일본처럼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NATO(No Action Talking Only)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수준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미얀마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함께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이정우 미얀마 한인회 회장은 지난 6월의 한국-미얀마 수교 40주년 기념 케이팝(K-POP) 공연을 생각하면 보람을 느끼면서도 오싹함을 감출 수 없다.

양곤 시내 미얀마이벤트파크(MEP)에서 개최된 이 공연에는 방탄소년단, 에일리, 헤일로, 에이코어, 엔소닉 등 한국의 5개 인기 그룹이 참여해 7,000여 명의 미얀마 한류팬들을 열광시켰다. 그러나 이번 공연은 자칫 무산돼 '한류' 바람이 거센 미얀마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뻔 했다. 기획자가 입장권 판매 대금과 기업 등의 후원금 약 18만 달러를 갖고 공연 1주일 전에 태국 방콕으로 달아났기 때문이다. 이에 한인회, 대사관, 현지 진출 기업 등이 공연을 예정대로 무사히 치르기 위해 힘을 모았다. 한인회는 교민, 현지 진출 기업 등으로부터 16만 달러를 빌려 공연을 계속 추진했고 무대 설치, 음향 등 공연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교민들이 무보수로 힘을 보탰다.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덕분에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빌린 돈도 무사히 갚을 수 있었다. 이정우 회장은 "그동안 공들여 쌓은 한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한인들이 너도나도 자발적으로 나서 힘을 합쳤다"고 말했다.

현실의 한류에 안주하지 말고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필요하다. '드림 소사이어티'의 저자이자 미래학자인 롤프 옌센은 "향후 소비자의 구매 결정은 이성적 이유보다는 감성적 이유로 이뤄지며 소비자는 실제 상품(메뉴)보다는 상품에 담겨 있는 이야기, 감성, 가치 등을 구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류에 창의적인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가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05 미얀마 진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 농기계 수출기업 대동공업

트랙터 등 농기계 현지시장 점유율 1위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제조업체인 대동공업은 미얀마에서 일본, 미국,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90%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10월 미얀마 국회의원 약 90%의 찬성으로 농업기계화 사업 파트너로 선정돼 11월에 미얀마 협동조합부와 1억 달러 규모의 농기계 수출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 신한은행이 8,500만 달러 규모의 중장기 수출금융 지원을 통해 힘을 실었다. 이 계약에 따라 지난 2월까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6,700대를 공급했다. 대동공업은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싶어 하는 미얀마에 단순히 농기계 판매가 아니라 농업 현대화 경험도 함께 전수했다. 지난해 12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아세안 의장국 자격으로 방한한 테인 세인 대통령은 대동공업의 대구 공장을 11개 핵심부처 장관 및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 전격 방문했다. 이 방문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은 "미얀마의 농업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의 새마을운동 노하우와 대동공업의 농업기계화 성공 역량을 기반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미얀마 농업기계화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동공업은 농업기계화를 위한 인력과 기술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초부터 미얀마 정부와 현지 농업기계화 연구소 설립을 논의해 왔다. 9월에 미얀마 농림부 산하 농업기계국과 '미얀마 농업기계화연구소(농기계 시험센터)'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동공업은 연구개발 및 애프터서비스 인력을 현지에 파견해 내년부터 미얀마 정부 관계자와 농업기계국 산하 기술센터 요원을 대상으로 단기과정(2주), 장기과정(3개월), 애프터서비스 기능과정(8일) 등 농기계 이론 및 설계, 제작, 수리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 자문 활동으로는 미얀마 농업기계화 중장기 로드맵 구축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초안 마련을 수행하게 된다.

현지 합작 공장 건설로 중국, 동남아 시장도 겨냥

대동공업은 이제 미얀마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미얀마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다. 지난 9월 미얀마 협동조합부 산하 미얀마 최대 규모의 협동조합인 CCS(Central Cooperative Society)와 합작공장 설립을 위한 조인트 벤처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대동공업의 '대동'과 미

얀마어로 '여명(黎明)'을 뜻하는 '야웅니우'를 합친 '대동야웅니우(Daedong Yauing Ni Oo., Ltd.)'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양곤에 농기계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가동 예정인 공장에서는 현지에 최적화된 60~100마력 중대형 트랙터와 콤바인, 관련 작업기 등 각종 종합형 농기계를 생산한다.

대동공업측은 경쟁사인 일본 쿠보타가 미얀마 판매법인 설립에 이어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주요 글로벌 농기계업체들이 현지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상황에서 공장 설립으로 시장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 공장 가동으로 원가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제조업 기반이 부족한 미얀마에 '메이드 인 미얀마' 제품으로 현지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합작 공장 설립 파트너인 CCS는 미얀마 14개 주에 340여 개 지소와 300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어 농기계 유통의 최적의 판매 채널이다.

대동공업은 장기적으로는 미얀마의 지정학적 위치를 십분 활용해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중국 등 인접 시장을 겨냥한 수출전진기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동공업이 미얀마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기계 시연회 모습

성공 사례 외국계 외식 프랜차이즈 1호 롯데리아

현지 외국인도 찾는 매장으로 시장 선점

2012년 2월 롯데그룹은 미얀마의 신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투자 진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대규모 회장단을 꾸려 현지를 방문했다. 검토 결과 초기 진출 유망 분야로 패스트푸드, 식품, 음료, 식품포장재 등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재 분야를 대상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투자 진출을 추진했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프랜차이즈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착안해 롯데리아를 1번 타자로 삼았다. 현지에서 '문베이커리(Moon Bakery)'라는 한국 퓨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MYKO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어 차근차근 준비를 마치고, 2013년 4월 미얀마 최대 축제인 띤잔(물축제)에 맞춰 양곤 최대 쇼핑몰인 정션 스퀘어에 1호점을 열었다. 개점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1차 물량을 완판 소진하고 1일 매출액 1,000만원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현지에 거주하는 서양인들도 롯데리아의 햄버거를 먹기 위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현재 양곤, 만달레이 등에 7호점까지 문을 열었고 2016년까지 30개 매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양곤 펄 콘도 부근의 롯데리아 매장



정션 스퀘어의 롯데리아 안내간판

최적의 사업 파트너 선정과 기민한 대응으로 성공

롯데리아가 단기간에 미얀마에서 성공한 비결로는 우선 최적의 사업 파트너를 만난 것이 꼽힌다. 사업파트너인 MYKO의 정주아 사장은 중국계 미얀마인과 결혼해 미얀마 전역에 한국식 퓨전 레스토랑을 13개 운영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 및 공급, 직원 관리 등의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 남편의 화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정션 스퀘어에 롯데리아를 위한 별도 건물을 지어 프랜차이즈업계 뿐만 아니라 미얀마 업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다른 성공 요인은 현지인의 기호에 따른 발 빠른 대응이다. 롯데리아는 1호점을 개점할 때 미얀마의 특성을 감안해 닭튀김과 흰밥을 세트로 제공하는 신메뉴를 개발해 인기상품으로 만들었다. 또한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현지 사정을 고려해 개설 초기 한우 불고기버거의 판매 비중을 줄였으나 예상과 달리 현지 수요가 많아 준비된 재고가 소진되자, 즉시 한국 롯데리아와 긴급 협의를 통해 마진 감소에도 불구하고 항공편으로 불고기 패티를 공수해 대응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아울러 개점 초기 송중기 등 한류 스타 광고를 통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한데 이어 싸이싸이 등 현지의 인기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현지인에게 친숙하게 다가간 점도 성공 비결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미얀마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에 따라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현지 프랜차이즈 시장은 이제 미국의 KFC가 2호점까지 개설하는 등 세계 각국 업체의 치열한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다. 지속되는 경제호황으로 미얀마인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리아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콜라 등 현지 음료시장 진출에도 힘 실어

롯데리아의 성공은 나머지 소비재 부분의 미얀마 진출을 촉진시켰다. 2014년 초에는 롯데칠성음료가 미얀마 음료 시장에 진출했다. 현지 음료 회사 MGS 비버리지(Myanmar Golden Star Beverages)와 합작회사인 Lotte-MGS Beverage를 설립한 것이다. 합작사에 7,959만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경제제재로 1997년부터 펩시콜라 제조가 중단됐던 양곤과 만달레이 공장을 재가동했다. 롯데칠성음료는 미얀마의 국민 스포츠인 축구를 주제로 한 광고마케팅 등을 펼쳐 지난해 미얀마 탄산음료 시장의 16%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체 미얀마 매출에서 펩시콜라와 세븐업 등 펩시 매출 비중이 70%, 나머지 30%는 스타콜라, 퀜치 사이다, 포파생수 등 현지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롯데제과가 미얀마 진출을 위한 '베이스캠프'인 사무소를 개설했다. 미얀마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연락사무소 역할을 담당할 사무소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성공 사례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의 '대우 아마라호텔' 건설

최적의 입지에 들어서는 랜드마크 호텔

미얀마는 2011년부터 개혁과 개방정책을 펼치면서 불교 유적지 등을 찾는 해외관광객의 증가로 호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양곤의 경우 노보텔 등 외국계 호텔 체인도 영업하고 있지만 예약 없이 무작정 방을 구하러 호텔에 가면 "Sorry, Full~!"이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다.

양곤 시내 중심부 인야호수 근처에 건설되고 있는 5성급 호텔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주관사를 맡고, 포스코건설(시공), 대우증권(프로젝트 파이낸싱), 호텔롯데(호텔 운영) 등이 참여하는 '대우 아마라호텔'이 주인공이다. 2014년 2월에 착공돼 오는 2017년 1월 완공 예정인 이 호텔에는 15층 규모의 고급 호텔(343실)과 29층 규모의 장기숙박 호텔(315실)이 들어선다. 총 사업규모 2억2,000만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완공되면 양곤에서 가장 높은 호텔이 된다.

미얀마의 호텔분야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 본 포스코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은 각각 건설투자자(CI: Construction Investor)와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 자격으로 호텔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1월 미얀마 국방부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양곤호텔 입찰을 진행하자 양사는 미얀마에서 쌓아온 사업역량을 발판 삼아 4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2012년 8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1년 여의 토지 사용 협상과정을 거쳐 2013년 9월 토지 임대계약(최장 70년)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40대 1의 경쟁률 뚫고 사업자로 선정

포스코건설은 미얀마에서 아직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불가능함에 따라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마친 후 자본설비 등을 일정 기간 운영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양도) 방식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BOT 방식은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하게 된다.

대우 아마라호텔은 양곤의 중심가인 제1도로변에 위치한 데다 불교 유적지인 쉐다곤 파고다 조망이 가능하다. 공항 접근성도 뛰어나 명품호텔로서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호텔 외관을 전부 유리로 시공하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을 미얀마 최초로 적용한 것도 돋보인다. 호텔 주변지역은 2014년 미얀마 환경보전지역인 그린존으로 지정돼 앞으로 14층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 없어 대우 아마라호텔의 랜드마크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실내외 수영장뿐만 아니라 연간 5개월간 지속되는 우기 속에서도 고객들이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특징이다.



대우 아마라호텔 건설 현장 모습

포스코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미얀마에 랜드마크적 성격을 지닌 상업시설을 시공하는 기록과 함께 향후 미얀마 건설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와 같은 포스코건설의 해외시장 내 신사업 창출에는 국내외 개발사업 경험과 노하우가 밑거름이 되고 있다. 실례로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도시의 중심 업무지역인 송도국제업무단지(송도IBD)를 건설하고 사옥까지 옮기면서 송도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베트남 최대 국영건설사인 비나코넥스와 함께 하노이시의 신흥주거지역으로 각광받는 북안카인에 현지 최초의 자립형 신도시 '스플랜도라'를 건설 중이다.